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조 윤 경[†]

고려대학교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심리학적 다른 변인들, 즉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임상 및 상담장면에서 활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나의식은 개별성 및 관계성 둘 다와 관련이 높으나 관계성과 관련이 더 높았으며 우리의식은 관계성과는 관련이 높으나 개별성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둘째, 나의식-우리의식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았다. 그러나 나의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우리에 대한 회이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우리에 대한 회이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문화에 맞는 한국인의 특성에 입각한 나의식-우리의식 척도와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문화에서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개념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한 치료와 예방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나의식, 우리의식, 개별성, 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

조윤경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조 윤 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E-mail : jwsy@hanmail.net

심리학에서 ‘나’와 ‘관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로 깊이 있고 폭넓게 다루어진 연구주제이다. 심리학은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전통아래 태동되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심리학은 서구인의 self 개념에 입각해 정립된 ‘자기’와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과 척도들을 도입하고 활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과 척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용어, 척도들은 개인주의적인 서구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러한 잣대에 의해 우리 한국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연구의 누적은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는 필연적인 괴리를 지닐 수 밖에 없다(한규석, 1999). 인간에게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자기’와 ‘관계’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고 척도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사회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인의 인간관계 특성에 기반한 토착심리학적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관련 맺으며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참조체제를 사용한다. 한국문화 속에서 사는 한국인은 고유한 인간관계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된 참조체제 중의 하나이다. 나의식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독자적인 자신의 모습 뿐 아니라 관계성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식은 나와 너가 모여 친밀한 교류과정을 통해 일체감을 느끼며 개개인과는 다른 독특한 집단정체성

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를 함께 보아야만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에 입각한 자기개념에 관한 척도가 없었고, 우리의식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포괄하는 척도가 없는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최근에 개발된 한국문화에 맞는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조운경, 2002)를 활용하여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과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나의식-우리의식이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을 통해 그동안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관계양식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제반 결과들이 임상 및 상담장면에서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인에 적합한 치료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개별성과 관계성의 측면에서 한국사람들의 나의식과 인간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의식-우리의식과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임상적으로 치료 및 예방적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의식-우리의식

한국에서는 그 동안 서구의 self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는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체계이다(Markus & Kitayama, 1991). 서구의 ‘자기’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탈맥락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개념과는 다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타인과 구별되는 ‘나’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서구인이 독립적인 ‘나’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관계’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 따라서 남과 구별되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서구인보다 더 명료하게 인식하고 중요시한다.

나의식은 개별적인 자기의식으로서 기본적으로 독립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지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성의 측면이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와 타인간의 경계도 강하지 않다. 따라서 나의식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독자적인 자신의 모습 뿐 아니라 관계성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인적 정체인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관련 공통성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이다. 집합적 추상명사로서의 ‘우리’는,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 그동안 여러 종류의 내집단 경험을 통해 내면화되고 일반화된 ‘우리’가 존재하며 이와 연합되거나 학습된 감정, 사고, 신념, 기대, 규범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한국인들의 우리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은 하나의 신념체계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박현수, 199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화로서 개별적인 자기보다는 타인지향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개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한 관계성 개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 축은 개인이 아닌 우리성이다(최상진, 1999). 즉 우리의식은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서구인은 개인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사회적 관계에 충실히 반영한다. 즉 서구인은 상대를 자신과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 대상화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주체가 집단이 아닌 개인임을 뜻하며, 따라서 상대의 자기정체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 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우리의식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식은 나와 관련된 너가 모여 친밀한 교류과정을 통해 일체감을 느끼며 개개인과는 다른 독특한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관계

한국인은 관계적 자기(relational self)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를 함께 보아야만 한다. 나와 우리는 다른 차원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나와 우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관계 속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인적 정체인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관련 공통성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문화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나의식 안에 관계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달리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불가분의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함께 보고자 한다.

개별성-관계성

자기개념은 자기와 관련된 신념과 지식들의 표

상체계로서 자기와 세상을 지각하는 참조체제이다. 이러한 자기개념은 자기(self)와 타인(other)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지향적이나, 타인지향적이냐에 따라 크게 개별성과 관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성은 분리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한다. 개별성은 독립, 자율, 개성추구, 자기확신, 자기주장적,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관계성은 연결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한다. 관계성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으며,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둘 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 둘 다 가 높은 집단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여 가장 심리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uisinger과 Blatt(1994)는 Erickson의 전생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에 관한 변증법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성이나 관계성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Blatt & Shichman, 1983). 개별성과 관계성은 청소년 후기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발달하지만, 성인기 이후에는 두 변인의 적절한 조화와 통합이 성숙한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생을 두고 변증법적으로 발달해 간다(Guisinger & Blatt, 1994).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은 큰 범주에서 보면 개별성 및 관계성과 상응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개념적 측면에서 개별성, 관계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나 의식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별성 뿐 아니라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기의식이며, 우리 의식은 정을 기반으로 한 일체감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인의 고유한 관계양식이다(최상진, 1999). 따라서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은 문화특수적인 한국인의 자기의식과 관계양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인 두 가지 자기개념인 개별성 및 관계성과는 그 의미하는 바나 본질적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개별성의 대가로 소외와 고독감을 경험하기 쉽다(Greenfield, 1994). 서구에서는 최근 들어 개인주의에 대한 한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개별적인 독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인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Chaibong, 2000). 반면에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관계성의 대가로 개인의 발달, 즉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지향적인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의식이 높을 경우, 서구사회에 비해 고독감이 낮을 수 있다. 또한 나 의식에도 관계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의식이 높은 경우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독감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독감을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정의한 문헌들과(구본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영, 1990; 김교현, 1991; 박우동, 1994), 집단주의자는 개인주의자들보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들(Ginter, Glauser, & Smalley, 1996; Rokach, Orjack, Cripps, Lackovic-Grgin, & Penezic, 2001; Triandis, 1985)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이 개인주의적인 현대사회

에서 가지게 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사회적 성숙도

심리사회적 성숙성이란, 한 개체가 심리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숙해 가는 것으로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숙이란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연속적인 발달을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적응과 변화를 포함한 그 이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인자, 1982).

서봉연과 황상민(1993)은 대학교육이나 사회적 관심이 그 동안 지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인간적 측면에서의 발달과 성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심리사회적 성숙성의 모형으로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개인을 평가하거나 정의하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의 건강한 심리발달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인간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유기체적 인본주의(Sheldon & Elliot, 1999)는 내재적인 심리적 욕구를 강조하는 개인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Erikson은 다른 사람들과 강한 연대를 해나가면서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정체감을 발달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심리사회적 성장을 중요시한다.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적 성장과 심리사회적 성장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Ryan, 1995). 유기체적 인본주의든 Erikson 학파이든 개인이 성숙한 목표를 추구해 갈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Kasser & Ryan, 1996; Ryan, 1995; Sheldon & Kasser, 2001).

나 의식과 우리의식은 한국 문화에 맞는 한국인의 자기의식과 관계양식으로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 의식에는 독자성 뿐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까지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의식이 잘 발달되면 더불어 심리사회적 성숙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문제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나 유형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담자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치료시 치료적 동맹을 손상시키거나 어렵게 할 수 있고(Horvath & Luborsky, 1993; Moras & Strupp, 1982), 치료시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Friedlander, 1993; Henry, Schacht, & Strupp, 1986). 또한 대인관계문제에 따라 심리치료의 과정 및 결과도 각기 달라진다(Tracey, 1993).

여러 가지 유형의 대인관계적 문제는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병리와 관련된다(Pinkus & Wiggins, 1990;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3). 즉 대인적 관계는 정신병리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치료적 개입(Benjamin, 1982; Kiesler & Watkins, 1989)과 치료효과의 중요한 예언지표(Piper, Azim, Joyce, McCallum, Nixon, & Segal, 1991)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1988)는 임상장면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 문제영역들을 모아 대인관계문제 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로 Adlen, Wiggins와 Pinkus

(1990)는 원형적 구조에 입각하여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는 원형모형 대인관계문제 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IIP-C)를 개발하였다. 원형적 대인관계문제 검사에서 대인관계의 경향성은 원형적 위치에서 지배성(dominance)과 친화성(affiliation)이라는 두 개의 직교차원이 있다. 하나는 지배성에서 복종성에 이르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양육에서 냉담에 이르는 차원이다(Sheffield, Carey, Patenaude, & Lambert, 1995).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과 홍상황(2002)은 IIP-C(대인관계원형검사)와 IIP-PD(대인관계 성격장애검사)를 표준화하여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를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을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 8가지로 나누고 있다.

대인관계문제는 나와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관련될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역동성에 따라서 대인관계문제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대인관계문제는 타인과 분리된 자기(self)개념이 우세한 서구에서 개발된 검사로서, 개인주의 문화인 서구사회에서는 자기(self)와 관련된 측면에서 대인관계문제의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관계지향적인 문화로서 관계성을 토대로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의 양상이나 정도가 서구사회와는 다르리라고 추론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한국인의 자기의식과 관계양식으로서, 대인관계의 양상 및 그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발달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

구사회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발달과 역동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차이에 따른 대인관계문제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3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개별성 및 관계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방 법

연구대상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도, 충북, 경북, 전북 지역의 총 11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869명의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8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851명(남 397명, 여 454명; 평균 연령 21.78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나의식-우리의식

조운경(2002)이 개발한 척도로서 나의식은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관계성, 자기우월성

의 5개의 하위요인, 우리의식은 관계지향성, 상호 친밀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우리에게 대한 회의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44문항씩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8, 우리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5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의식의 내적 일치도는 .88, 우리의식의 내적 일치도는 .85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의식의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고유성 .75, 성취지향성 .72, 자기수용성 .80, 관계성 .74, 자기우월성 .83으로서 .72에서 .83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식의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관계지향성이 .85, 상호친밀성이 .79, 상대배려성이 .74, 일체감이 .85,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76으로서 .76에서 .85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도록 7점 척도로 자가평가하게 되어 있다.

개별성-관계성

김동직(1998)이 제작한 척도로, 개별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은 자기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의 3요인이며, 관계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은 친밀성, 친화성, 공감성의 3요인이다. 개별성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2이었으며, 관계성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의 내적 일치도는 .79이며, 관계성의 내적 일치도는 .79이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자가평가 하도록 하였다.

심리사회적 성숙도

심리사회적 성숙도 검사는 서봉연과 황상민(1983)이 개발한 척도로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8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62에서 .85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원래 이 검사는 정서안정성, 사회인지

역량, 사회성, 윤리 도덕성, 자아정체성, 긍정적 사고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역량과 윤리 도덕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요인으로 59문항의 검사를 구성하였으며, 59문항 중 하위요인별 문항-총점 상관이 .30 이상인 33문항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내적 일치도는 .88이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정서안정성 .76, 자아정체성 .74, 사회성 .84, 긍정적 사고 .79로서 .74에서 .84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자가평가 하도록 하였다.

대인관계문제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홍상황(2002)이 미국에서 개발된 IIP 검사를 한국실정에 맞게 문항을 추가보완하여 표준화시켰다. 대인관계문제 검사는 실제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호소하는 문제들을 8가지 영역별로 분류하여 만든 검사이다. 대인관계문제의 8가지 영역은,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이며, 1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대인관계문제 검사인 KIIP-C의 내적 일치도는 .93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대학생은 .83, 성인은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5이다.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는 지배통제 .87, 자기중심성 .81, 냉담 .81, 사회적 억제 .86, 비주장성 .86, 과순응성 .83, 자기희생 .75, 과관여 .73으로, .73에서 .87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자가평가 하도록 하였다.

결 과

나 의 식-우 리 의 식 과 개 별 성-관 계 성 과 의 관 계

나 의 식 은 개 별 성($r=.43, p<.01$) 및 관 계 성($r=.49, p<.01$)과 정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으 며 관 계 성 이 개 별 성 에 비 해 나 의 식 과 상 관 이 높 은 것 으 로 나 타 났 다. 반 면 에 우 리 의 식 은 관 계 성($r=.67, p<.01$) 과 매 우 높 은 수 준 의 정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으 나 개 별 성($r=-.11, p<.01$) 과 는 부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다.

개 별 성, 관 계 성 과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과 의 관 련 성 을 아 라 보 기 위 해 표 준 회 귀 분 석 을 실 시 하 였 으 며, 결 과(표 준 회 귀 계 수 및 설 명 변 량) 는 표 1 과 표 2 에 제 시 하 였 다.

개 별 성 및 관 계 성 과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과 의 관 련 성 을 아 라 본 결 과, 개 별 성 은 고 유 성 과 관 련 이 가 장 높 았 고, 관 계 성 은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인 관 계 성 및 자 기 수 용 성 과 관 계 가 밀 접 한 것 으 로 나 타 났 다. 고 유 성 은 개 별 성 과 의 관 련 성 이 상 당 히

높 았 으 나 관 계 성 과 도 어 느 정 도 관 련 이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성 취 지 향 성 은 개 별 성 및 관 계 성 과 의 관 련 성 이 비 슷 하 였 다. 자 기 수 용 성 은 개 별 성 보 다 는 상 대 적 으 로 관 계 성 과 의 관 련 성 이 더 높 았 다. 이 에 비 해 자 기 우 월 성 은 개 별 성 과 는 정 적 인 관 련 을 보 이 고 있 고, 관 계 성 과 는 미 약 한 수 준 에 서 부 적 인 관 련 을 나 타 내 고 있 다. 따 라 서 자 기 우 월 성 요 인 을 제 외 한 나 머 지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들 은 개 별 성 과 의 관 련 성 못 지 않 게 관 계 성 과 도 높 은 관 련 이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표 1 참 조).

개 별 성 및 관 계 성 과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과 의 관 련 을 아 라 본 결 과, 관 계 성 은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중 관 계 교 류 성, 상 호 친 밀 성, 상 대 배 려 성, 일 체 감 과 높 은 수 준 의 정 적 인 관 련 이 있 는 반 면 개 별 성 은 미 약 한 수 준 에 서 부 적 인 관 련 을 보 이 고 있 었 다. 이 에 비 해 우 리 에 대 한 회 의 는 개 별 성 과 는 정 적 인 관 련 을, 관 계 성 과 는 부 적 인 관 련 을 보 이 고 있 다(표 2 참 조).

표 1.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에 대 한 개 별 성 과 관 계 성 의 표 준 회 귀 분 석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관계성	자기우월성
개별성	.57 **	.32 **	.27 **	-.12 **	.31 **
관계성	.25 **	.37 **	.47 **	.52 **	-.08 **
R^2	.41	.26	.32	.27	.10

** $p<.01$

표 2.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에 대 한 개 별 성 과 관 계 성 의 표 준 회 귀 분 석

	관계교류성	상호친밀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우리에 대한 회의
개별성	-.14 **	-.01	-.16 **	-.09 **	.25 **
관계성	.65 **	.57 **	.48 **	.55 **	-.39 **
R^2	.42	.32	.24	.30	.19

** $p<.01$

나의식-우리의식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나 의 식 및 우 리 의 식 과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와 의 상 관 을 아 아 본 결 과, 나 의 식($r=.48, p<.01$)과 우 리 의 식($r=.44, p<.01$)은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와 정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으 며 상 관 의 수 준 은 비 슷 하 였 다.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및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과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와 의 관 계 를 아 아 보 기 위 해 상 관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다. 나 의 식 의 하 위 요 인 과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와 의 상 관 이 높 은 순 서 부 터 나 열 하 면, 자 기 수 용 성, 성 취 지 향 성, 고 유 성, 관 계 성 의 순 으 로 정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으 며, 자 기 우 월 성 은 부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다. 또 한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의 경 우 에 는, 상 호 친 밀 성 이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와 높 은 정 적 상 관 을 보 이 고 있 고, 우 리 에 대 한 회 의 는 높 은 부 적 상 관 을 나 타 내 고 있 다.

우 리 문 화 는 관 계 지 향 적 인 문 화 로 서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이 유 기 적 인 관 련 을 맺 고 있 기 때 문 에 일 상 생 활 에 서 동 시 적 으 로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에

영 향 을 미 친 다 고 생 각 되 어,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10 개 가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에 미 치 는 영 향 을 아 아 보 기 위 해 표 준 회 귀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다 (표 3 참 조).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에 대 한 설 명 량 은 60% 정 도 이 며, 10 개 의 변 인 중 자 기 수 용 성 이 가 장 강 력 한 예 언 변 인 이 었 고 그 다 음 으 로 는 성 취 지 향 성, 상 호 친 밀 성 의 순 이 었 다. 또 한 자 기 우 월 성 과 우 리 에 대 한 회 의 요 인 은 부 적 인 영 향 을 미 치 는 것 으 로 나 타 났 다.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을 총 괄 하 여 자 기 수 용 성 이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에 있 어 서 가 장 중 요 하 다 는 것 을 알 수 있 다.

또 한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들 이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하 위 요 인, 각 각 에 미 치 는 영 향 력 을 아 아 보 기 위 해 표 준 회 귀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다 (표 3 참 조).

정 서 안 정 성 의 경 우, 자 기 수 용 성 이 가 장 강 력 하 게 영 향 을 미 치 는 정 적 인 변 인 이 었 고 자 기 우 월 성 이 가 장 부 적 인 변 인 으 로 나 타 났 다. 자 아 정 체 성 의 경 우, 고 유 성 과 성 취 지 향 성 이 가 장 정 적 인 변 인 이 었 고 상 대 배 려 성 이 가 장 부 적 인 변 인 이 었 다.

표 3.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심리사회적 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나 의식과 우 리 의식 하 위 요 인 의 표 준 회 귀 분 석

나 의 식 과 우 리 의 식 의 하 위 요 인	심 리 사 회 적 성 숙 도	정 서 안 정 성	자 아 정 체 성	사 회 성	긍 정 적 사 고
고 유 성	.13 **	.08 *	.33 **	-.00	.19 **
성 취 지 향 성	.21 **	.00	.25 **	.05	.08
자 기 수 용 성	.46 **	.42 **	.18 **	.23 **	.29 **
관 계 성	-.09 *	-.13 **	-.10 *	-.12 **	-.04
자 기 우 월 성	-.22 **	-.31 **	.04	-.01	-.09 *
관 계 지 향 성	.03	.06	-.14 **	.31 **	-.07
상 호 친 밀 성	.10 **	.16 **	.09 *	.21 **	.15 **
상 대 배 려 성	-.03	-.10 **	-.23 **	.12 **	-.16 **
일 체 감	-.07	-.15 **	-.02	.06	-.10
우 리 에 대 한 회 의	-.19 **	-.16 **	-.13 **	-.14 **	-.22 **
R^2	.60	.38	.42	.55	.28

* $p<.05$, ** $p<.01$

표 4.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중앙치에 따른 4집단간 심리사회적 성숙도 일원변량분석

	집단①	집단②	집단③	집단④	평균(표준편차)	F	집단간 차이검증
나의식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우리의식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사례수	291	144	121	295	851	(3, 847)	
심리사회적 성숙도	4.37 _b	4.33 _b	3.99 _a	3.89 _a	4.14 (.53)	58.42 **	①, ② > ③, ④

** $p < .01$, 아래첨자는 Scheffé 사후 비교 결과임

사회성의 경우, 관계지향성, 자기수용성, 상호친밀성이 정적인 변인이었고 관계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부적인 변인이었다. 긍정적 사고의 경우, 자기수용성이 정적인 변인이었고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부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4집단으로 분류하여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식이 높고 낮음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의식이 높은 집단이 나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았다. 따라서 우리의식보다는 나의식이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좀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나의식-우리의식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대인관계문제 검사는 임상장면에서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대인관계의 문제영역에 따라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

기희생, 과관여가 포함된다. 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문제를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의식($r = -.33, p < .01$)과 우리의식($r = -.33, p < .01$)은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수치의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기우월성($r = .22, p < .01$)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r = .34, p < .01$)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대인관계문제와 약간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와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나의식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문제와의 상관이 높은 순서부터 나열하면 자기수용성, 성취지향성, 고유성, 관계성의 순으로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자기우월성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5. 나의식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문제간의 상관

	나의식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관계성	자기우월성
대인관계문제	-.33 **	-.35 **	-.42 **	-.50 **	-.13 **	.22 **

** $p < .01$

표 6. 우리의식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문제간의 상관

	우리의식	관계지향성	상호친밀성	상대배려성	일체감	우리에 대한 회의
대인관계문제	-.32**	-.18**	-.33**	-.18**	-.18**	.34**

** $p < .01$

(표 5 참조).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상호친밀성이 대인관계문제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상대배려성, 관계지향성, 일체감은 대동소이하게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따라서 나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기수용성,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상호친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적으며, 자기우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일 수 있음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 문화의 특성상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대인관계문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식과 우리의식을 분리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보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동시에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의식의 하위요인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10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량은 42% 정도였다. 자기우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대인관계문제를 강력하게 정적으로 예언하는 변인이며, 관계성, 일체감의 순서로 미약한 수준이지만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고유성, 성취지향성, 자기수용성, 상호친밀성은 거의 같은 정도의 부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나의식과 우리의식 하위요인의 표준 회귀분석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대인관계문제
고유성	-.23**
성취지향성	-.23**
자기수용성	-.19**
관계성	.13*
자기우월성	.25**
관계지향성	.04
상호친밀성	-.20**
상대배려성	.05
일체감	.11*
우리에 대한 회의	.23**
R^2	.42

* $p < .05$, ** $p < .01$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대인관계문제의 영역별로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나의식은 지배통제, 과관여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식은 자기희생, 과관여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의식의 하위요인별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특히 자기수용성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기우월성은 과순응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과관여와는 정적 상관을

표 8. 나외의식 및 우리의의식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간의 상관

	나외의식 (나외의식)	우리의의식	자기우월성	우리에 대한 회의	자기수용성	상호친밀성
1. 대인관계문제	-.33** (-.32**)	-.32**	.22**	.34**	-.50**	-.33**
2. 지배통제	.11** (.19**)	-.30**	.54**	.31**	-.14**	-.17**
3. 자기중심성	-.22** (-.08*)	-.54**	.35**	.47**	-.40**	-.44**
4. 냉담	-.44** (-.33**)	-.50**	.09**	.39**	-.54**	-.46**
5. 사회적억제	-.48** (-.40**)	-.46**	.06	.35**	-.58**	-.45**
6. 비주장성	-.43** (-.48**)	-.16**	-.05	.18**	-.48**	-.26**
7. 과순응성	-.34** (-.46**)	.02	-.09**	.08*	-.37**	-.11**
8. 자기희생	-.15** (-.29**)	.11**	-.07	.07*	-.23**	-.02
9. 과관여	.15** (.07*)	.03	.42**	.13**	-.09**	.05

* $p < .05$, ** $p < .01$

주. 2 ~ 9 : 대인관계 문제의 8개 하위요인

(나외의식) : 나외의식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 요인을 통제한 나외의식의 부분상관 결과

자기우월성, 자기수용성 : 나외의식의 하위요인

우리에 대한 회의, 상호친밀성 : 우리의의식의 하위요인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또한 우리의의식의 하위요인별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대인관계문제의 8개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상호친밀성은 지배 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호친밀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대인관계문제에

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나외의식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 요인을 통제한 나외의식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과의 부분상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외의식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 요인을 통제하면, 대인관계문제 중 지배 통제, 냉담, 사회적 억제가 다소 높아지고 자기중심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가 낮아지는 것을 알

표 9. 나의식과 우리의식 점수의 중앙치 분리에 따른 4집단의 대인관계문제 및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별 일원변량분석

	집단 ①	집단 ②	집단 ③	집단 ④	F	집단간 차이검증
나 의 식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우리의식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사례수	291	144	121	295	(3, 847)	
대인관계문제	3.26 _a	3.30 _a	3.65 _b	3.66 _b	25.15 **	③, ④ > ①, ②
지배통제	2.84 _a	3.21 _b	2.70 _a	2.90 _a	7.40 **	② > ①, ③, ④
자기중심성	2.78 _a	3.19 _{bc}	2.99 _{ab}	3.34 _c	24.03 **	④ > ①
냉 담	2.91 _a	3.24 _b	3.46 _b	3.78 _c	49.39 **	④ > ②, ③ > ①
사회적 억제	2.79 _a	3.04 _a	3.43 _b	3.76 _c	54.13 **	④ > ③ > ①, ②
비주장성	3.47 _a	3.22 _a	4.17 _b	4.09 _b	46.18 **	③, ④ > ①, ②
과순응성	3.65 _b	3.23 _a	4.31 _d	3.98 _c	38.83 **	③ > ④ > ① > ②
자기희생	3.91 _b	3.59 _a	4.36 _c	3.91 _b	21.17 **	③ > ①, ④ > ②
과 관 여	3.75 _a	3.69 _a	3.76 _a	3.53 _a	4.29 **	①, ②, ③, ④

***p*<.01, 아래첨자는 Scheffé 사후 비교 결과임

수 있다(표 8 참조).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4집단을 구성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그 결과, 우리의식이 높고 낮음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의식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나의식이 낮은 집단은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있으며, 나의식이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문제의 정도가 낮았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별로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중앙치 분리에 따른 4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식이 높고 우리의식이 낮은 집단이 지배통제가 가장 높았다.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모두 낮은 집단이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가 가장 높았다. 나의식이 낮은 집단이 나의식이 높은 집단보다 비주장성이 더 높았다. 나의식이 낮고 우리의

식이 높은 집단이 과순응성, 자기희생이 가장 높았다. 과관여의 경우,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한국문화에 맞는 ‘자기의식’과 ‘관계양식’을 나의식과 우리의식으로 정의하고,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과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나의식-우리의식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를 확인하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이나 임상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기저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임상적 활용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나의식-우리의식을 개별성-관계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식은 개별성 및 관계성 둘 다와 정적 상관이 있으나 관계성과의 상관이 다소 높았고, 우리의식은 관계성과는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물론 개별성과 관계성이 둘 다 나의식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개별성보다 관계성이 나의식에 대한 설명량이 더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는 관계지향적인 우리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나의식에서 관계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고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나의식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자신의 고유성을 지니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건강하게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자기수용성이 개별성보다는 관계성과 관련되는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자기수용성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지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특성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자기수용성은 다시 타인수용성으로 연결되는 등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기수용성이 관계성과 관련된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나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둘 다 개별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식의 부정적 특성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계 속에서 밀착되고 융합되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에서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괴리감과 구속감’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우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둘 다 ‘개인 또는 나’로 수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변모해가면서(한규석, 2002), 우리의식보다 나의식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가해가고 있는 변화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나의식-우리의식을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관련하여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비슷한 수치로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우리에게 대한 회의, 나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자기우월성 순으로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긍정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발달할수록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하며,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부정적 측면이 발달할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긍정적인 측면은 격려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인격의 성숙 및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심리사회적 성숙도란 사회적 맥락과 요구 속에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며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봉연, 황상민, 1993). 따라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상대

적 관점과 절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숙하다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인 맥락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절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각각의 상황이나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절대적이고 지고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적절히 적응하고 기능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성숙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숙성 또는 성숙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나의식-우리의식을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나의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인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나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우리에게 대한 회의가 높아질 때, 대인관계문제인 자기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은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의식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는 나의식과 관련된 일반인의 막연한 편견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나의식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관계지향성과 일

체감은 자기희생, 과관여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상대배려성은 과순응성, 자기희생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로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과 관련되는 대인관계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문제 유형은 관계지향적인 문화권에서 대인관계문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문화에서의 대인관계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나의식의 하위요인과 우리의식의 하위요인 10개 모두에 대해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우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 관계성, 일체감의 순서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정적인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인 관련을 갖는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자기우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회의는 자기지향적인 측면과 관련되고, 관계성과 일체감은 타인지향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기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거나 타인지향적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나의식-우리의식을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식과 우리의식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의식과 우리의식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으며,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거의 야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의식과 우리의식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둘째,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의 하위요인을 총괄하여 자기수용성이 높은 경우, 심리사회적 성숙도($r=.70, p<.01$)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문제($r=-.50, p<.01$)와 대인관계문제 8개의 하위요인들이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수용성은 나 의식의 하위요인으로서 자신을 수용하는데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성숙 및 대인관계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심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자기수용성의 의미와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호친밀성은 우리 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심리사회적 성숙도($r=.40, p<.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대인관계문제($r=-.33, p<.01$)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호친밀성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높고 대인관계문제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에서 상호친밀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의식의 하위요인 중에서 주관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자기우월성과 우리에 대한 회의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 대인관계문제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 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자기우월성과 우리 의식의 부정적 요인인 우리에 대한 회의가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낮추고 대인관계문제를 더욱 야기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정도면에서 우리에 대한 회의가 더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이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문제 8개의 하위요인별로 집단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정도와 상호역동성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의 특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대인관계문제의 유형을 통해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의 특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나 의식-우리 의식과 대인관계문제 검사를 통해 나 의식이나 우리 의식의 하위영역이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 의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성과 우리 의식의 하위요인인 상호친밀성이 심리사회적 성숙 및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우리에 대한 회의와 자기우월성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예후를 예측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 및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의 특성 및 제반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문화에 맞는 한국인의 특성에 입각한 나 의식-우리 의식 척도를 활용하여 나 의식과 우리 의식의 특성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인관계문제

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통해 한국인의 자기의식과 관계양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특성을 임상 및 상담장면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문화에서의 나의식과 우리의식의 개념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의 문제에 관한 치료와 예방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나의식과 우리의식에 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중·고등학생과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나의식과 우리의식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영 (1990). 고독의 심리적 속성과 대처양상. *대학생활연구* 8, 133-15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교현 (1991). 대학생의 심리적 고독에 대한 이해. *충남대학생활연구* 18, 105-120.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홍상환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91-412.
- 김인자 역 (1982).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 의 개인성장*. Eastwood Atwater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박우동 (1994). 귀인양식에 따른 고독의 감정반응. *경상대학생활연구소보* 20, 9-22,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현수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 황상민 (1993). 서울대생의 심리사회 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8(1), 1-3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조윤경 (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개발 및 타당화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공호, 이수원(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한규석 (1999).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8월 20일, 연세대학교. 103-127.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enjamin, L. S. (1982). Use of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to guide intervention in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iesler(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pp. 190-212). New York: Pergamon.
-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6, 187-254.
- Chaibong, Hahm. (2000).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11(1), 127-134.
- Ginter, E. J., Glauser, A, & Richmond, B. O. (1996).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anxiety among

- two south pacific cultures. *Psychological Reports*, 74, 875-879.
- Greenfield, P. M. (1994).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s developmental script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 1-40). Hillsdale, NJ: Erlbaum.
-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ea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s properties and clinic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Horvath, A. O., & Luborsky, L. (1993). The role of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61-573.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Well-being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1-288.
- Kiesler, D. J., & Watkins, L. M. (1989). Interpersonal complementarity and the therapeutic alliance: A study of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6, 183-194.
- Moras, K. & Strupp, H. H. (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 Pincus, A. L., & Wiggins, J. S. (1990).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4, 342-352.
- Piper, W. E., Azim, H. F., Joice, A. S., McCallum, M., Nixon, G. W., & Segal, P. S. (1991). Quality of object relation versus interpersonal functioning as predictors of therapeutic allia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432-438.
- Rokach, A., Orjeck, T., Cripps, J., Lackovic-Grgin, K., & Penezic, Z. (2001). The effects of culture on the meaning of lonel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3, 17-31.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82-497.
- Sheldon, K. M. & Kasser, T. (2001). Getting older, getting better? personal strivings and psychological maturity across the 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91-501.
- Soldz, S., Budman, S., Demby, A., & Nerry, J. (1993).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in circumplex and five-factor space: Explorations with a clinical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41-52.
- Triandis, H. C.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원 고 접 수 일 : 2002. 12.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2. 6

게 재 결 정 일 : 2003. 3. 7

A Study o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Relationships betwee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Individuality- 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Yun-Kyung Cho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and other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dealt with using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measures. The research is about the relationships among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consciousness-we-consciousness and psychosocial maturity, interpersonal problems was certified. As a result, this study hints at treatment and prevention based on inter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adaptability through such concepts as I-consciousness and we-consciousness.

Key Words : I-consciousness, we-consciousness, individuality, relatedness, psychosocial maturity, interpersonal problems

K C I